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WSJ: 트럼프 관세로 소매업체 이번엔 타격받을 듯
- FinanceYahoo: 트럼프, “파월 의장을 면직시키지 않겠다”

[미국 금융]

- Bloomberg: G-10 중앙은행 대부분 이달 말 금리 결정
- FinanceYahoo: 오픈하이머 자산 “S&P500, 내년 말에 7,100까지 랠리”

[트럼프 행정부]

- Bloomberg: 트럼프 “당선 후 시 주식과 처음으로 연락했다”

[미국 생활]

- CNBC: 쇼핑몰에서 생활하는 미국인 늘어난다

[오일]

- WSJ: 사우디 유가 인하... 아시아 수요 약세 때문

[전기차]

- Bloomberg: 트럼프 전기차 회의론으로 한국 투자액 540억불 위협받아

[중국경제]

- Bloomberg: 중국, 더 강력한 경기 부양책 예고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아마존, 근로자 계약 협상일 다가온다
- Bloomberg: 트럼프도 미국 소고기 산업을 구할 수 없다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WSJ: Why Tariffs Could Really Pinch Retailers This Time

트럼프 관세로 소매업체 이번엔 타격받을 듯

-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많은 소매업체들은 상대적으로 타격이 심하지 않았다.
- 그러나 이번엔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인 관세 실행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이번 관세 정책은 보복적인 성향이 있고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 소매업체들은 지난 2017년에는 섬유와 의류 수입의 중국산이 37% 였는데, 작년엔 26%로 줄었다. 대신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로 수입 방향을 틀었다.
- 미소매업체연합(NRF)의 예상에 따르면 이번 2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는 규모가 커서 소매업체들이 감당하기에는 힘들 것이다. 가구, 의류, 가

전제품 등 6개 카테고리의 매년 가구당 비용이 소비자 입장에서 3백62불에서 6백24불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 일부 소매업체들은 비용 부담을 소비자에게 넘기고, 일부는 자체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WSJ 기사

FinanceYahoo: Tensions between Trump and Powell are cooling. For now.

트럼프, “파월 의장을 면직시키지 않겠다”

- 트럼프와 연준 파월 의장 간의 갈등이 진정되고 있다. 트럼프는 파월 의장이 임기가 끝나는 2026년 5월 전에 파월 의장을 면직시키지 않겠다고 말했다.
- 파월 의장도 트럼프의 과거 자신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과 영향력 약화 발언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행정부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 그러나 연준의 향후 금리 조치로 긴장이 금새 다시 커질 수도 있다.
- 파월 의장에 대한 면직에 대해선 적법성 논란의 여지가 많다. 연준 관련법에 있는 ‘정당한 사유’의 의미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FinanceYahoo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Central Banks to Keep Markets Lively Into Year's End G-10 중앙은행 대부분 이달 말 금리 결정

- G-10 국가 중 9개 국가가 향후 2주간 금리 정책 토론을 가지고 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장은 이들이 어떤 결정을 할지 확실히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 연말에는 투자자들의 예상보다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가 시간이 더 소요되기 때문이다.
- 우선 트레이더들은 오는 12월 18일 0.25% 금리 인하 예상을 가격에 완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일본중앙은행이 12월 19일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것도 확실히 예상하지는 않고 있다.
- 이번 주 목요일 유럽 중앙은행은 금리를 0.25%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향후 수개월간 더 큰 폭의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생각을 투자자들은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다.
- HSBC 자산 관리의 글로벌 선임 전략가인 Joe Little은 “경제와 무역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FinanceYahoo: Oppenheimer's Stoltzfus New Top S&P 500 Bull With 7,100 Target 오픈하이머 자산 "S&P500, 내년 말에 7,100까지 랠리"

- 오픈하이머 자산 관리는 S&P500이 계속 랠리를 펼쳐 내년 말에 7,10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 예상은 투자은행들의 긍정적인 전망치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 이 은행의 선임 자산 전략가인 John Stoltzfus는 펀더멘탈이 현재 경제의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증시 시장은 내년에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 투자 종목이 다변화되고, 특정 기업 규모나 투자 스타일에 국한되지 않고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FinanceYahoo 기사

[트럼프 행정부]

Bloomberg: Trump Says for First Time He Communicated With Xi After Election 트럼프 "당선 후 시 주석과 처음으로 연락했다"

- 트럼프는 지난 수일 내에 11월 당선 후 처음으로 시 주석과 통화했다고 말했다. 물론 정확하게 언제, 어떤 내용을 교환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 이 둘이 마지막으로 만난 것으로 지난 2019년 6월 일본에서 열린 20개국 정상회담이었다.
- 트럼프는 최근 불법 이민 문제와 펜타닐 마약 물질의 밀수와 관련해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 보복을 하겠다고 위협한 후 지난달에 두 국가의 책임자들과 소통했었다. 이후 이번엔 시진핑 중국 주석과 통화한 것이다.
- 트럼프는 캠페인 당시에도 중국산에 60% 관세 부과를 공언했다. 최근에는 행정부 주요 직책에 중국 매파 인사들을 기용했다. 주중 대사로는 전 상원의원 David Perdue를 지명했다.

Bloomberg 기사

[미국 생활]

CNBC: More Americans are living in malls, as developers get creative to help ease the housing crisis 쇼핑몰에서 생활하는 미국인 늘어난다

-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죽어가는 쇼핑몰의 공간과 주차장을 활용해 아파트를 짓고 있다. 이제 쇼핑몰에서 생활하고, 일하고, 놀고, 식당에 가는 것이 주택 시장의 트렌드가 되고 있다.
- 2001년 이후 전통적인 쇼핑몰들은 쇠퇴하고 아마존 같은 온라인 구매가 늘고 있다. 쇼핑몰들은 생존을 위해 변하고 있다. Macy's와 같은 기업들은 규모를 축소하거나 아예 문을 닫고 있다.
- 이때 비어버린 공간을 활용해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트렌드이다. 부동산 컨설팅 회사 Realogic에 따르면 2022년 1월 최소 192개 쇼핑몰에 주택이 건설될 계획이다. 전국적인 주택 부족 현상을 생각하면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CNBC 기사

[오일]

WSJ: Saudi Oil-Price Cut Indicates Demand Softness in Asia

사우디 유가 인하... 아시아 수요 약세 때문

- 사우디가 유가 인하를 결정했다. DNB Markets의 분석가들은 아시아 대륙의 수요 약세 때문이라고 말했다.
- 사우디 국영 석유 기업 아람코는 두바이 지역에 배럴당 0.90달러의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할 예정이다. 12월 1.70달러에서 하락한 것이고, 2021년 초 이후 두바이산에 대해 가장 낮은 프리미엄이다.

WSJ 기사

[전기차]

Bloomberg: Trump EV Skepticism Threatens \$54 Billion in Korea Plans

트럼프 전기차 회의론으로 한국 투자액 540억불 위협받아

-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오랫동안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비판했다. 이에 따라 7천5백 달러의 전기차 세금 공제를 비롯한 보조금, 인센티브가 사라질 수 있다. 이에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을 위해 540억 달러를 투자한 한국 기업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 Reshoring Initiative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1분기까지 미국 해외직접투자 및 리쇼어링 중 전기차 배터리가 약 절반을 차지했다. 2023년 한국의 직접투자 및 리쇼어링은 다른 나라보다 많은 2만3백6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 이렇게 만들어진 일자리가 대부분 공화당 지지주에서 만들어졌으므로 트럼프가 IRA 혜택을 줄이지 않을 것이란 낙관론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트럼프 정부가 혜택을 줄이고, 중국 배터리 기업의 미국 진출을 허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시선이 많다.

Bloomberg 기사

[중국 경제]**Bloomberg: China Signals Bolder Stimulus for Next Year as Trump Returns****중국, 더 강력한 경기 부양책 예고**

- 중국이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과의 무역 전쟁에 대비해 더 직접적이고 더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예고했다. 중국은 12월에 연간 성장 목표 등을 정하는 대규모 중앙경제작업회의를 실시한다.
- 중국 정부는 2025년에는 14년 동안 유지한 신중한 통화 정책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더 많은 금리 인하를 예고한 것이다.
- 또한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을 안정화하고, 경기 순환을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분석가들은 중국 정부가 더 많은 채권을 발행하고 기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그리고 중국 정부는 소비 진작을 강조했다. 중국 정부의 2025년 최우선 과제는 내수 시장 회복일 것으로 보인다. 올해 중국 정부는 제조업 수출 진작을 통해 경기 침체를 벗어나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덤핑 수출이 많아 여러 나라의 비판을 받았었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WSJ: Amazon Faces Deadline to Set Bargaining Dates for Delivery-, Warehouse-Worker Pact****아마존, 근로자 계약 협상일 다가온다**

- 미국 최대 노조 중 하나인 The International Brotherhood of Teamsters가 아마존과 배송 및 창고 근로자들의 노조 계약 협상 날짜를 12월 15일까지로 정했다.
- 약 3개월 전, 아마존은 배송 기사에게 약 2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이에 따라 배송 기사들의 연평균 급여가 작년보다 7% 상승한 시간당 약 22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WSJ 기사

Bloomberg: Trump Won't Be Able to Save the Struggling US Beef Industry**트럼프도 미국 소고기 산업을 구할 수 없다**

-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고기 산업을 구할 수 없다. 소고기가 부족하다. 사육되는 미국 소의 수는 1961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수년간의 가격 하락, 가뭄, 비용 급등, 저렴한 닭고기에 대한 소비자 선호 변화 등 때문이다.
- 지난 2월, 미 농무부는 2025년부터 소고기 재고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높은 대출 비용과 열악한 목초지 상황 때문에 새로운 소를 사육하기 어렵다. 이제 2027년은 되어야 소고기 재고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 트럼프의 정책도 소고기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은 소고기 가격을 올릴 수 있다. 육류 포장업에서 노동력이 줄어들고 인건비가 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오클라호마 주립대 농업경제학 교수 Derrell Peel은 트럼프 정책이 식량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 반대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소고기 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 2024년 미국의 소고기 수입량은 약 200만 톤으로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내 소고기 소비량의 15%가 해외산이다. 트럼프가 소고기에 관세를 많이 부과한다면 미국 소고기 산업이 다시 회복될 동안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Bloomberg 기사

[보고서]

美비트코인 ETF로 돈 몰린다..."트럼프 당선후 순유입 100억달러 육박"

친(親) 비트코인 대통령을 자처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미국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자금 유입액이 100억 달러(약 14조3천47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블랙록과 피델리티 등 12개 펀드 발행사의 비트코인 직접 투자 ETF에는 미국 대선일인 지난달 5일 이후 99억 달러가 순유입됐다. 현재 이들 펀드의 총자산은 약 1천130억 달러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주 가상화폐 지지자로 알려진 폴 앳킨스를 차기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으로, 데이비드 섹스 전 페이팔 최고운영책임자(COO)를 신설한 백악관 인공지능(AI) 및 가상화폐 담당 책임자(차르)로 각각 지명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